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 사랑방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 6일(월)은 임시 공휴일입니다. 공동체에서도 휴무합니다.
- 다음 주일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이를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 어린이학교 5월 캠프여행이 9일(목)부터 1박2일 동안 서울자연캠핑장에서 있습니다.
- 정태일 목사님 내외분이 10일(금)~23일(목)까지 미국에 다녀오십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박태규 · 전향옥 집사 가정 ( 감사 )  
한호남 · 정승희 집사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화진심 학생 ( 생일 감사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18 호

2024년 5월 5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베이징에서 온 편지

사랑하는 사랑방공동체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징에서 이지성 목사 인사드립니다.

지난 4월 21일 주일예배 때, 경찰들이 우리 교회에 쳐들어왔다. 신고가 들어와 불법모임이라 당장 민가에서 나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긴 시간동안 교섭 끝에 2주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 이사 갈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계속 쫓아가겠다.”는 협박만 남기고 사라졌다.

더 이상 하나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판단해 교회는 이제 가정집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방법으로 뜻을 모았다. 사역자들은 가정집들을 돌아가면서 작은 무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다른 가정들은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식당을 통째로 빌리고 성찬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사실 이런 형태의 예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베이징에 많은 교회들에서 이행해왔다. 우리는 늦게 당하는 편이다. 다른 교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이런 방법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대부분 성도 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 성장세가 둔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몇몇 가정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부흥하며 새로운 평신도 리더들이 일어났다. 이제는 베이징에(몇 군데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3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많은 교회들은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더 깊이 숨어들어 눈에 띄는 교회, 예배당, 기독교 서점 등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회에 중국 가정교회 리더들이 한 400명 참석했다. (물론 거의 다 출국 못하고 큰 이슈가 되었지만) 다가오는 9월에 인천 송도에서 열릴 제4차 로잔대회

는 참석 신청하는 중국교회 지도자는 거의 없고, 아마 대부분 베이징에서 zoom으로만 참석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와중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사기죄로(헌금 걷는 것은 곧 사기) 불법 출입국으로 (외국에서 종교 활동하면 불법),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죄목으로(교회가 부흥되면 불법) 감옥행 티켓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중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악과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서 교회를 ‘값싼 은혜’라는 함정에서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으로부터 비롯하였다고 믿고 있다. 사실 2013년 베이징 파수꾼교회 사건은 “중국교회가 영광을 향한 가장 뚜렷하고 성공에 가까운 노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는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까마귀처럼 우리는 ‘싸구려 은혜’라는 시체 주위에 모여 그 시체의 독을 받아 마셨다. 그 결과 예수를 본받는 삶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말았다. 은혜에 관한 교리가 비할 데 없이 신격화되어 그 교리가 하나님 자체, 은혜 자체가 되어 버렸다. ... 교회는 ‘의롭다 함의 교리만 가지고 있으면 의롭다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값싼 은혜가 이긴 것이다. .... 오늘날 혈값에 얻은 은혜의 필연적인 결과로 기성교회가 붕괴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닐까”

오늘날 세상 모든 교회들은 이런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지금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 신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삶이다. 어쩌면 남보다 힘들게 사는 모습은 진정한 ‘값 비싼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지성 목사



## 한주간의 말씀

“ 나 주에게 곡식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 레위기 2장 1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104장 453장 187장  
기도 : 전경희 집사  
성경 : 이사야 32장  
제목 : 한 왕이 나타나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1. 내용: 장차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What)  
<문단구분>  
1~8절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9~14절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이 몸부림쳐라  
15~20절 그 때에는 그 땅에 공평과 의가 머물 것이다
2. 의미: 만군의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Why)
  - 1) 어리석고 간교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 2) 고귀한 사람들은 고귀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 3)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3. 적용: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자. (How)
  - 1)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가집시다.
  - 2)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을 경계합시다.
  - 3) 성령의 인도를 늘 기도로 구합시다.

##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사랑방 인터뷰

### 1. 나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아영: 나의 집. / 진지: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과 노는 곳  
진용: 예배를 드리는 곳이자 우리 학교 / 하민: 나의 고향집  
예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곳 / 민용: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  
하온: 하나님의 나라예요. / 하성: 나의 고향이에요.

### 2. 교회에 생겼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아영: 아주 크고 긴 1인용 그네가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지: 함께 축구 할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준: 드론 조종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용: 더 다양한 놀거리를 원해요.  
진용, 하민, 하온: 딱히 없는 거 같아요. 지금이 좋아요.  
하성: 바다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랑 친구들이 교회에 많이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 3.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것 같나요?

아영: 궁금했던 것을 다~ 물어볼 거예요! 만약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나는 어떤 모습일지가 가장 궁금해요.  
진지: 제일 먼저 진짜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할 거예요. 여기저기 먼저 보면서도.  
진용: 너무 기뻐서 기절할 것 같아요.  
하민: 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최고로 대접해 드릴 거예요. 동물은 천국에 가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예준: 사인해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민용: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온: 너무 당황할 거 같아요. / 하성: 엄청 좋을 거 같아요.

### 4. 공동체 식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영: 언제나 저희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진지: 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진용: 어릴 때부터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민: 키워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용: 용돈 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온: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성: 사랑해요.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아영어린이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마태복음 19 : 13-14 인도자  
21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대표기도>

히브리서 10 : 16-17 인도자  
563 564 다함께  
다함께  
화진지 어린이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고운 가루처럼 드리는 순결한 마음" 정재훈 목사

레위기 2 : 1-3 권하민 어린이  
결작품 어린이사랑방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설교자  
570 다함께  
최진용 어린이  
438(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서예준 권하성 권하온 / 봉헌위원 : 최민용 /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형 진나우 / 꽃꽂이 : 김영화

예 배

## 공동기도문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마음이  
어린이와 같이 순결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 고운 가루처럼 드리는 순결한 마음

하나님 자녀들의 규정집.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앞둔 시점에 주셨습니다. 내용은 율법 조문들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5가지 제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제와 고운 가루. 제사 중에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예배자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소제의 의미는 과정에서 보면 순전함을, 예물의 형태에서는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변화를 상징하는 누룩과 유혹을 상징하는 꿀은 금지되고, 부패를 막는 소금과 믿음을 상징하는 기름과 헌신을 의미하는 유향을 함께 넣습니다.

어린이로부터 배움. 순결함과 순전함을 상징하는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준입니다. 어린이로부터 겸손과 순수한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의 고귀함을 다시 생각하며, 굳어진 겉모습과 속사람을 다시 깨뜨리고 부수어 곱게 정제 된 어린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립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장성아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을 시작하는 한 주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교장선생님과 시간을 보내고 어린이대공원에서 뮤지컬 '고릴라'를 보고 꾸러기 밭을 만들고 꽃과 발작물 모종을 사고 심고 어린이날 잔치를 했습니다.

전부터 밭에 무엇을 심을까 의논을 해서 꾸러기들은 방울토마토, 가지, 옥수수를 심기로 하고 모종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꾸러기들이 간 곳에서는 옥수수를 25주씩 판다고 해서 옥수수는 가지랑 방울토마토만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여러 모종을 구경했습니다. 멜론도 심고 싶고 수박도 심고 싶다고 합니다. 사과도 심자고 해서 꾸러기 밭에 심을 것을 골라야 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 쌈 채소를 보더니 한 꾸러기가 자기가 좋아한다며 로메인상추를 고르니 다른 꾸러기가 자기는 그 옆에 있는 게 좋다며 오크 상추를 고릅니다. 꾸러기들은 이 선생님이 집어든 민트향을 맡더니 마음에 든다고 하여 애플민트와 페퍼민트도 샀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기다리는 꾸러기들 눈이 자꾸자꾸 꽃을 향합니다. 꽃을 좋아하는 꾸러기들이 꽃도 심고 싶어 해서 결국 꽃들도 고릅니다. 모종값보다 꽃값이 많이 듭니다. 김영화 권사님의 도움을 받아 먼저 꽃을 심고 발작물도 심었습니다. 꾸러기 밭이 수도랑, 트램펄린이랑도 가깝습니다. 올해는 밭을 더 가꾸어보자고 다짐해 봅니다.

꾸러기 어린이날 선물로 경운기도 타고 달달한 간식 선물도 왕창 받았습시다. 선생님들과 꾸러기들이 서로 숨긴 보물을 찾아 선생님들께 비행기, 어부바, 꽃가마 선물도 받고, 달달한 간식이 붙어있는 물고기도 잡아 골고루 나누어 가졌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지난 주일에 예고한 대로 지난주 어린이학교는 심심할 새가 없었고, 심심하기는커녕 많~이 바빴습시다. 먼저 월요일 2교시에 캠프 조별 모임이 정식으로 시작되어서 한 주 동안 캠프 조 이름 정하기, 삼시세

끼 메뉴와 간식 정하기, 텐트 문패 만들기, 식재료 및 조리도구 담당 정하기 등이 숨 가쁘게 이루어졌습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건강검진이 있어서, 전체 어린이들이 안과와 치과를, 3, 6학년은 거기에 더해 내과까지 다녀왔습니다. 내과 검진을 위해서는 아침을 먹지 않고 소변을 받아와야 하고, 거기에 더해 모두의 심장을 쫓기하게 만드는 채혈의 시간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주사바늘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온 몸을 바들바들 떨기도 했는데, 내과에서는 오히려 담담했던 친구가 치과 의사 선생님 앞에서 더 긴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안과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동안 컴퓨터나 휴대폰을 많이 만진 걸 생각하면서 갑자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은 어린이 날 기념 '멋 부리는 날'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친구, 미리 만들거나 구매했다는 친구, 인터넷으로 대여했다는 친구 등등. 모두가 이 날을 위하여 신경을 쓰고 한껏 꾸미고 나타나서 서로 서로의 모습에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요리 선생님들의 특별 음식을 먹고, 이후에 나 집사님께서 경운기도 태워주시고, 간식은 아이스크림, 마지막에는 학교에서 준비한 선물과 카드가 있는 날. 온종일 시끌벅적, 하하호호 즐거운 어린이 날 기념일이었습니다. < 교사 : 전선희 >

### 멋쟁이학교

화창했던 날들이 많았던 이번 주는 가정학습기간으로 보냈습시다. 멋쟁이들은 가정에서 도보여행에서의 피로를 회복하고, 각자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알차게 시간들을 보냈습시다. 일주일이란 시간을 이용해서 가족과 여행을 떠나거나, 따로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기도 하고, 공연장이나 영화관 등을 찾기도 하고, 중간에 멋쟁이들이 만나서 재밌게 놀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날까지 보내고 나면 월요일 저녁에 다시 등교를 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겠지만, 멋쟁이들이라면 씩씩하게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요. 다시 만날 때에 어떻게 보냈나 즐겁게 수다떨 모습들이 기다려집니다. < 교사 : 이어진 >



## 풋살 경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축구를 하러 양주에 있는 풋살장으로 갔습니다. 봄이 한창인 것을 알리듯 풋살장 바닥에는 소나무 꽃가루가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이 미니 축구를 시작한 지 벌써 세번째, 이 축구를 하게 된 이유는 올해에 들어서 멋쟁이들이 축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축구는 선배들과 멋쟁이 재학생들이 참여하며 더욱 더 재밌는 축구 퍼포먼스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축구는 3개의 팀으로 나뉘어 시간제한과 1골을 먼저 넣는 식으로 행해졌습니다. 상당히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룰을 가진 축구였기에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그 반대로 많은 기회가 있는 축구였습니다. 한편 체스와 알카기를 섞은 느낌의 축구는 전략적이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느낌도 드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체스를 하듯 포지션을 맡아 서로의 발을 맞추며 골을 넣기도 하고 화려한 기술을 쓰며 모든 수비를 뚫고 골을 넣기도 하고, 장거리 슈트를 하는 등 많은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우리 팀을 꾸짖기도 격려해 주기도 했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을 새삼스레 체감했습니다. 우리 팀 골키퍼를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점점 자신감이 오르는 것이 보이고 그 기대에 보답하듯 더 많은 골을 막아내었습니다. 운이 따라 준 것도 있으나 칭찬의 힘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팀 수비를 꾸짖었는데, 꾸짖을수록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경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다시금 깨달는 시간이었습니다.

각각의 포지션을 맡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였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를 비우면 얼마나 치명적인지, 다른 사람이 그 자리까지 맡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축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축구를 통해 배운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푸른꿈사랑방 정이안 학생

##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장영미 전도사

찬송 : 429장, 516장, 305장

성경 : 에베소서 2장 1-10절

말씀 : 은혜로 얻은 구원

중보기도 :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중동지역의 평화와 복음화>

종교와 사상. 이념의 대립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과 경제논리로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동 지역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는 길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복음이 중동 땅에 더욱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어둠이 있는 지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더욱 널리 드러날 수 있도록. 중동지역의 종전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공협. 에제르 여성모임 >

한공협 여성지도자분들의 봄 모임이 태안에서 있습니다. 공동체의 여성지도자분들이 많은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사랑방공동체 40주년 창립 기념 주일을 지낸 주간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랑방 식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본격적인 파종 시기가 되면서 밭에 깨도 심고 여러 모종들을 심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비가 없어서 수시로 물을 공급해주었습니다. 쭉쭉 자라는 작물들을 보며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화단 경계목 교체 작업 후 널려 있던 여러 나무껍질이나 잔가지들을 정리하고 남은 나무도 처리하는 등 뒷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더욱 깨끗하고 정돈된 공동체 마당을 보면서 애써주신 손길에 감사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지킴이를 도우면서 어린이주일을 준비하는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